

광주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시설·인력 '태부족'

매년 700건 이상 정비 요청 접수
지원금 사용 가능한 센터 1곳뿐
직원 2명 수리·행정 모두 도맡아
수리 지연사례 빈번...이동권 제약

지체장애인 30대 김씨는 최근 휠체어 바퀴가 고장 나 행정복지센터에 수리를 신청했다. 외출할 때 항상 타고 다녔던 휠체어가 고장 난 탓에 꼼짝없이 집에 갇히게 된 김씨는 서둘러 수리를 맡겼지만, 업체에 신청이 밀려있어 약 2주가 지난 후에야 겨우 수리를 끝낼 수 있었다.

광주지역에 장애인의 필수 이동 수단인 보조장비기구(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곳이 턱없이 부족해 장애인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에서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보장구 수리 업체가 한 곳밖에 없는 데다, 2명의 직원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수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 보장구 수리업체는 시가 지정위탁 운영하는 광주지체장애인협회의 보장구수리센터 1곳뿐이다.

연간 보장구 수리 지원금(시비 7:구비 3 매칭)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는 30만원, 일반 대상자는 20만원 이내로 지급된다. 다만, 수리 비용 중 50%는 자부담이다.

수리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각 관할 구청 행정복지센터에 보장구 수리를 신청해야 한다. 접수된 신청 건



광주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가 최근 광주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휠체어 바퀴를 수리하고 있다.

은 구청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한 뒤 보장구수리센터에 이관하며, 이후 센터 직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수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광주시 내에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비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시설 업체 10여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시설 업체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탓에 광주지체장애인협회 보장구수리센터에 수리 접수가 몰리고 있다.

광주지체장애인협회에서 제공하는 보장구 수리 서비스는 2022년 755건, 2023

년 764건이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접수 건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수리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단 두 명에 불과해 업무 과중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 방문 수리는 신청자의 장비 상태를 확인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단순한 타이어 교체 요청이라 하더라도 현장 점검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하루 일정이 밀리거나 신청자와의 약속 시간을 못 맞

추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들은 행정 업무부터 현장 방문 수리까지 2인 1조로 진행하기 때문에 하루 일정이 빠듯하다. 광주의 5개 자치구를 돌아다니며 하루 5~6건의 신청 건을 처리하고 있는 탓에 신청자와의 약속 시간에 늦는 경우도 많다.

김만호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과장은 "수리를 맡기는 분들이 제품 모델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1차로 통화 연결이나 방문을 통해 필요한 부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부품 재고가 센터에

남아 있을 때는 빠른 수리가 가능하지만 전동 휠체어의 경우에는 해외 부품을 사용하는 제품도 많아서 길게는 두세달이 걸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센터에는 긴급 수리 요청도 적지 않다. 길을 가던 중 휠체어가 고장 나가거나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 움직일 수 없게 된 장애인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제한된 인력으로 즉각 대응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다.

김 과장은 긴급 수리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일정 등의 이유로 늦어질 때는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휠체어를 자리에 두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 센터에서 휠체어를 수거·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되도록이면 피해가 없도록 서둘러서 수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광주 전역에서 활동하다 보니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려 다음 일정이 늦춰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시간 지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해 출퇴근 시간보다 일찍 나와 업무를 보고 있지만 2명의 인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광주시는 예산 문제로 인해 장애인 수리 인력 충원 등 지원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량을 분석해 지원 예산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재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라 당장 전문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글·사진·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주말동안 광주·전남 영하권 추위...최대 10cm 적설

이번 주말 광주와 전남에는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6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27일부터 29일까지 흐리고 눈이 내리겠다.

눈은 27일 늦은 오후 광주와 전남북서부에서 시작해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다음날 오전까지 1~3cm 상당의 많은 눈이 내리겠다.

광주와 전남북서부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3~10cm이고, 이밖의 다른 지역에는 1~5cm의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찬 공기가 남하함에 따라 기온이 다시

낮아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돼 옷차림에도 각별히 신경써야겠다.

27~28일 최저기온은 영하 5도~2도, 최고기온은 3~7도로 평년보다 2도 가량 낮겠다.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예보됐다.

기온은 일요일인 29일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최저기온은 영하 3도~영상 3도, 최고기온은 8~10도로 평년보다 2~3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빙판길 낙상사고와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 베비에르 마옥천 명장 명패서 '윤석열' 이름 가려

제과·제빵분야 명장인 마옥천(주)베비에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 명장' 명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가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오후 광주 동구 베비에르 문화전당점. 매장 입구 쪽에 세워진 마옥천 명장의 명패 하단에 파란색 종이 가려져 있던 '대한민국 명장' 명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가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를 본 한 시민은 "탄핵 정국이라 여론을 의식해 '윤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광주에서는 안우성 셰프가 명장 명패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가려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지난 19일 한 누리꾼이 안우성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다녀온 뒤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 글과 사진을 올렸는데, 해당 사진 속 명패에는 윤 대통령의 이름 세 글자가 은박지로 가려져 있었다.

누리꾼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것을 짚으며 "계엄령 터지고 가린 것 같다"고 추정했으나, 안 셰프는 민원이 들어와 잠시 이름을 가렸으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아 기자

육군 31사단 장병 '집단 식중독'... 보건당국 조사 나서

17명 노로바이러스 검출
"치료 후 모두 회복된 상태"

육군 제31보병사단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2월 31사단 급식소에서 점심 식사를 한 장병과 종사자 1000명 중 20명이 복통과 설사, 두통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했다.

13일 식중독 의심 신고를 접수한 북구는 다음 날 식품·환경 165건, 종사자와 유증상자 40명(80건)에 대한 검체를 수거해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식중독 증상을 보인 이들 중 17명으로부터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북구는 식중독 발생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31사단 관계자는 "유증상자들은 의무시설에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모두 회복된 상태"라며 "북구의 권고에 따라 자체 방역과 소독 후 급식을 재개했으며, 이후 추가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검체 검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거듭난다

입주예정자, 명칭 변경 제안 수용
입주예정자·서구청·현산 3자 간담회
이달 재시공, 2027년 상반기 준공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광주화정아이파크의 단지명을 '광주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변경한다.

26일 현산에 따르면 최익훈 현산 대표는 지난 19일 이승엽 예비입주자협의회 대표에게 새로운 단지명을 전달했다.

해체공사 기간 중 현산과 예비입주자협의회는 해체 범위, 단지 특화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양측은 아파트 입면, 단지 조경, 커뮤니티의 특화 등 다방면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입주예정자 다수가 단지 명칭 변경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협의 끝에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로 단지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센테니얼(centennial)은 '100년간의'



지난 19일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오른쪽)가 이승엽 광주센테니얼 아이파크 예비입주자협의회 대표에게 새로운 단지명을 전달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를 100년의 프리미엄과 가치를 담은 아파트로 짓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날 오후 현장 내 안전교육장에서 예비입주자협의회, 광주 서구청, 현산의 상생간담회가 진행됐다. 상생간담회에서 3자는 안전하게 마무리한 해체공사에서 각

자의 역할과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재시공 현장을 안전하고 치밀하게 관리해 높은 품질의 아파트로 짓자는데 뜻을 같이했다.

간담회 후 예비입주자 30여명과 서구청 및 현산 관계자는 해체공사가 완료된 광주센테니얼 아이파크 현장을 함께 둘러봤다.

현장 답사 후 예비입주자협의회는 재시공 준비 중인 현장 직원들에게 호환기대비용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최익훈 대표는 "입주예정자 여러분께서 관심과 격려, 신뢰를 보내주신 덕분에 현장이 안전하게 해체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며 "재시공 공사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광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를 지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센테니얼 아이파크는 12월 중 재시공을 시작해 2027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이다. 정성아 기자